

바레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665 km ²	GDP	208억 달러 (2010년)
인구	80만 명 (2010년)	1인당 GDP	25,991달러 (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Bahraini Dinar (B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0.38 (2010년 평균)

- 인구 80만 명,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바레인은 걸프 만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국으로 바레인 섬 등 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수니파인 알칼리파 가문이 200년 이상 통치해 오고 있으며, 아버지 이사(Isa bin Salman al-Khalifa) 국왕의 뒤를 이어 1999년 왕위에 오른 하마드 국왕은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음.
- 2011년 2월 중순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3월 중순부터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격화되자 시위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군대가 파병되었고,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석유자원은 다른 GCC 회원국들에 비해 고갈된 상태로 1970년 대 부터 석유의존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금융업 등 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지역 내 금융, 교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음.
- 또한 연간 86만 톤 이상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 제4위의 알루미늄 제련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중화학공업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바레인은 석유산업과 금융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 성장은 국제 유가와 바레인을 포함한 걸프만 지역의 사회 안정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
 - 석유산업은 GDP의 25%, 재정수입의 88%,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금융업은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까지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6%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09년에는 유가하락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1%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걸프지역 경기회복,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4% 초반대의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1~2%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2월 중순부터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및 관광수입의 감소, 투자자금의 이탈과 금융기관의 주변 걸프국으로의 소재지 이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동안 기업 친화적 분위기와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6.7	8.4	6.3	3.1	4.2
재정수지 / GDP	4.7	3.1	6.6	-6.1	-0.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3.3	3.5	2.8	2.0

자료: IMF, EIU.

- 또한 소요사태로 포물러 원 그랑프리, 바레인 보트 쇼 등 주요 국제행사가 취소되면서 국가의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음.

□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 금융정책,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통제,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힘입어 연 2~3%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2011년에는 원유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요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정이 전반적인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원유의 가격은 2011년에 전년 대비 각각 35%,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추진해 온 보조금 개혁 조치는 반정부 시위사태로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공공부문 지출확대, 연료 및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입(收入) 증가로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GDP 대비 6%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2010년에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원유수입(收入) 증가로 적자 폭이 전년 보다 크게 축소되었음.
- 2011년에는 시위 사태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확대, 주택 건설 등 경제유화책 시행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자원의 점진적 고갈

- 바레인은 걸프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석유자원이 발견된 국가이나, 다른 걸프국들에 비해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GCC 국가 중에서는 오만과 더불어 OPEC 비회원국임. 원유 매장량은 3억 배럴로 15년 후에, 천연가스는 1,000억 m³로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2009년 기준 세계 원유 매장량의 37%,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은 18만 b/d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있는 아부 사파(Abu Saafa) 유전에서 15만 배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왈리(Awali) 유전에서 3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음.

□ 외부 여건 변화에 비교적 취약한 경제구조

-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입과 경제적 지원을 주변 GCC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는 주변 걸프국들의 경기상황, 사회안정 등 대외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바레인은 GCC 회원국 중 가장 수입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시트라 정유공장(Sitra refinery)에서 정제한 석유제품을 주변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금융, 교통, 관광 등 지역 내 허브 기능 수행

- 공항, 항구, 통신 등 양호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내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호텔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등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바레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일 정도로 관광분야의 성장잠재력도 큰 것으로 보임.

□ 세계 제4위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 보유

- 바레인알루미늄공사(Aluminium Bahrain: Alba)는 1971년에 건설된 세계 제4위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으로 2005년 5번째 용광라인을 완공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연간 50만 톤에서 86만 톤으로 증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연간 생산능력을 15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 Alba는 GCC 회원국 알루미늄 총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수출의 13%, 비석유제품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등 바레인의 주력 수출품임.

다. 정책성과

□ 탈 석유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970년 대 부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여 왔음.
- 정부는 Alba를 비롯하여 석유화학, 선박수리 분야 등을 육성하여 왔음. 이에 따라 알루미늄 중심의 제조업이 GDP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금융,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점진적인 민영화 추진

- 정부의 경제개방 정책, 법률제도 개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힘입어 2002년 2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가 2006년에는 2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2 (2004) → 10 (2005) → 29 (2006)
→ 18 (2007) → 18 (2008) → 3 (2009)

○ 또한 2010년 11월 IPO를 통해 Alba의 지분 10%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바레인항공(Gulf Air)을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 주요 수출품은 원유, 정유제품, 알루미늄으로, 원유 및 정유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76%, 알루미늄이 13%를 차지하고 있음. 상품수지는 2003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증가로 지속적인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2009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라 흑자 폭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미국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미국, 중국 등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의 2.7%, 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임.

○ 그러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31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흑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흑자 폭이 감소추세임. 2011년에는 정치·사회 불안에 따른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수입 감소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지는 관광수입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득수지는 외국 기업들의 이익금 송금 증가와 외채 이자 지급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상품수지: 32억 달러(2008) → 24억 달러(2009) → 31억 달러(2010)

·서비스수지: 17억 달러(2008) → 19억 달러(2009) → 20억 달러(2010)

·소득수지: -9억 달러(2008) → -24억 달러(2009) → -29억 달러(2010)

·경상이전수지: -18억 달러(2008) → -14억 달러(2009) → -15억 달러(2010)

□ 외환보유액 증가, 그러나 외채규모는 확대

-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5억 달러 수준으로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06년 말의 27억 달러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3개월분에 불과하나, 국부펀드인 뭌탈라카트(Mumtalakat)의 자산 규모가 128억 달러에 이르고 유사시 GCC 회원국 들로부터의 지원 가능성도 높음.
- 외채 규모는 해외차입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 GDP 대비 70% 수준을 초과하여 과중한 편임. 그러나 DSR이 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부펀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총외채잔액은 148억 달러 수준으로 2004년 57억 달러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최초로 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이래 해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에도 12.5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2,188	2,907	2,257	560	620
경 상 수 지 / GDP	13.8	15.7	10.3	2.7	3.0
상 품 수 지	2,386	2,865	3,245	2,439	3,076
수 출	12,340	13,790	17,491	12,052	15,746
수 입	9,954	10,925	14,246	9,613	12,670
외 환 보 유 액	2,694	4,101	3,803	3,540	4,488
총 외 채 잔 액	7,772	8,361	10,171	10,546	14,770
총외채잔액/GDP	49.0	45.3	46.4	51.2	71.0
D S R	3.7	3.7	3.8	7.1	6.7

자료: IMF, EIU.

- 그러나 최근 반정부 시위 사태로 정부 채권의 CDS 스프레드가 크게 상승하는 등 향후 해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시 차입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이자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칼리파 가문의 장기 통치체제 지속

- 알칼리파 가문(Al-Khalifa family)이 1783년 페르시아를 축출한 이래 200년 이상 바레인을 통치해 오고 있으며, 하마드(Hamad bin Isa al-Khalifa) 국왕은 강력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하마드 국왕의 삼촌인 칼리파(Khalifa bin Salman al-Khalifa) 총리는 1971년 이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마드 국왕의 장남인 살만(Salman bin Hamad al-Khalifa) 왕세자는 1999년 왕세자로 책봉되었음. 또한 알칼리파 가문이 내무, 재무, 외교 등 주요 요직을 독점하여 왔음.
- 하마드 국왕은 2002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전환을 선포하고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정치개혁을 단행하였음.
- 의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자문회의(40석, 상원에 해당)와 선거로 선출되는 대표회의(40석, 하원에 해당)의 양원제로 구성되었고, 특히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
- 이슬람국가협의회(Islamic National Accord Association: INAA)는 2006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실시된 대표회의 선거에서 각각 17석, 18석을 획득하는 등 바레인 최대의 시아파 정당임. 대표회의에서는 친정부 성향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지속

- 전체 인구 중 70%가 시아파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니파가 정치, 경제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시아파는 주로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어 종교적 긴장이 지속되어 왔음.
- 또한 소수인 수니파가 수니파 국민 수를 확대하기 위해 아랍 각국과 파키스탄의 수니파 주민들을 바레인 국민으로 귀화시켜 옴에 따라 시아파의 불만을 초래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성공의 영향을 받아 2011년 2월 중순부터 알 칼리파 가문의 권력독점 구도 혁파와 시아파에 대한 각종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아파는 정부가 특히 군·경찰 인력 채용에서 시아파를 차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1년 2월 14일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분노의 날(Day of Rage)’로 명명된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하였음.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3명이 사망하였고, 2월 17일에도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4명 이 사망하였음.

□ GCC 방위군 파견 및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 시위 초기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가 집회를 허용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폭력 사태가 일단 진정 되었음.

- 2011년 2월 18일 살만 왕세자는 국영 TV 연설을 통해 시위대에 시위 자체 촉구 및 대화를 요청하였고, 2월 19일 하마드 국왕은 살만 왕세자를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정부 대표로 지명하였음.

- 또한 정부는 정치범 300여 명 석방, 가구당 2,650달러의 현금 지급, 식료품 보조금 규모 7.7% 확대, 향후 5년간 5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계획 등 정치·경제적 유화책을 발표하였고, 주택, 노동, 에너지, 보건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음.
- 그러나 3월 11일 정부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강경책으로 선화하면서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총으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시위가 다시 격화되었음.
- 3월 14일에는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 UAE가 500명의 병력을 바레인에 파견하였고, 3월 15일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시위대가 외국 군대의 주둔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면서 정부군과의 충돌이 심화되자 정부는 3개월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이에 따라 진주 광장(Pearl Square)에 집결해 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시위 및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함.

□ 수니파와 시아파 국가 간 갈등 심화

- GCC 방위군(Peninsula Shield Force)의 바레인 파병,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시위사태는 진정되었고 반정부 시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임.
-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파병에 대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이라크 등이 반발하고 있고 이란의 바레인 시아파 배후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바레인 국왕은 반정부 시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였으며, 시위를 지지하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시아파 국가에 대한 항공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음.
- 한편, 이란에서는 바레인에 대한 군사개입을 비난하는 시위가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시위 사태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GCC 회원국과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 지속

○ 경제적 안정 및 치안을 주변 GCC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 최대 경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대부분의 바레인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있는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며, 양국을 연결하는 25km의 교량(King Fahd Causeway)은 바레인이 아라비아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육상통로임.

- 2011년 2월 17일 GCC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바레인 사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경고하면서 바레인 정부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음.

- 또한 GCC는 2011년 3월 10일 반정부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레인과 오만에 인프라 개발과 주택 건설을 위해 10년에 걸쳐 각각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 또한 GCC 회원국들은 단일통화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중이며, 2009년 12월 연례 정상회의에서 연합군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표시킴 (단, UAE와 오만을 제외한 4개 회원국이 맺은 통화협정).

* 관세동맹 시행으로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 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함.

- 단일통화가 출범할 경우 지역 중앙은행의 역할 담당할 합동통화위원회 (Joint Monetary Council)가 2010년 3월에 설치되고 사우디 중앙은행 총재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 그러나 단일통화 출범까지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로 단일통화에 대한 경제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단일통화 출범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등 서방국가와도 우호관계 유지

- 미국은 바레인에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2002년에는 바레인을 중요한 나토 비회원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 FTA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도 정치·경제적으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란과는 긴장관계 심화

- 1970~80년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아파가 여러 차례 왕정 전복을 기도한 바 있으며,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핵 개발활동으로 양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왔음.
- 또한 이란이 시아파의 평화적 시위를 외국군까지 개입시켜 탄압하고 있다며 바레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양국간 긴장관계는 심화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외채상환을 연체하거나 리스케줄링 한 사례가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반정부 시위사태 발생 이후 국가신용등급 하락

- OECD는 2011년 3월 평가회의에서 반정부 시위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과 외채 증가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Fitch도 시위 격화, 외국군 개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정치·사회적 혼란 심화를 반영하여 바레인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하향조정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2011년 2월 23일 바레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하였으며, 3개월 내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1. 3.)	3등급 (2010. 4.)
S&P	BBB (2011. 3.)	A- (2011. 2.)
Moody's	A3 (2011. 2.)	A3 (2010. 8.)
Fitch	BBB (2011. 3.)	A (2010.1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6년 4월 17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1984년), 문화협정(1987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0년 교역규모는 8.6억 달러임. 수출은 자동차, 전선 등을 중심으로 2.7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5.9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은 정전기기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석유제품과 알루미늄 수입이 각각 184%, 16% 증가하면서 수입은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0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0건, 136,935천 달러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9,10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이 4,500만 달러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바레인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2008년 21억 달러, 2010년 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1년 2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바레인 건설부가 발주한 5.5억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을 수주하였음.

<표 4> 한-바레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498	283	274	자동차, 전선 등
수 입	293	318	589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합 계	791	601	863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GCC 회원국인 바레인은 산유국이자 걸프만 지역의 금융 허브로서 석유 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가 최근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하마드 국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튀니지, 이집트 등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알 칼리파 가문의 200여 년 장기 권력독점과 국민의 다수인 시아파 차별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2011년 2월부터 발생하였음.
- 시위 사태는 정부의 강경 진압과 GCC 방위군 파견,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일단 진정되었으나, 시아파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주변 시아파 국가(이란, 이라크 등)들도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정부가 국내외에서 압력을 받고 있음.

- GCC 국가들의 다양한 지원, 미국 등 서방국과의 강한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시위사태가 국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정치·사회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2011년에는 전반적 경제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